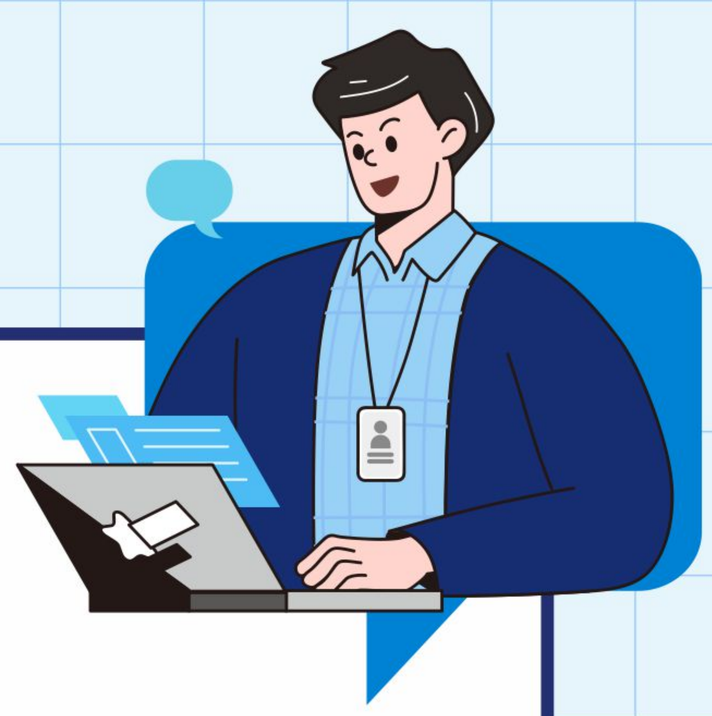
새로운 변화, 큰 행복, 더 큰 원주





2025년 원주시 하반기

적극행정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



원주시

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취업연계로
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구인난 해소
(산·학·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산업인력 양성 모델 구축)

반도체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

기업지원일자리과

추진배경

- 원주시가 투자 유치한 반도체 기업의 인력 수요 급증 및 지역 내 반도체 관련 전공 및 훈련과정 부족으로 기업의 구인난 및 일자리 미스매치 발생
-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모델을 구 축하여 청년층 지역정착 및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
- 산·관·학 협력체계 구축(2025. 3. 4. MOU 체결.): 원주시, 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, ㈜DS테크노 간 '반도체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업무협약'
- 기업의 기술 요구(머시닝센터 운용, 정밀가공 등) 반영한 교육과정 협의·설계
- ㈜DS테크노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운영 (2025. 9. 1. ~ 11. 27.)
  - ㈜DS테크노 취업연계맞춤과정(기계시스템과 반도체 머시닝센터 직종)
  - 모집인원: 20명 ※ 교육생 전원수료 목표 운영 중
-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: 과정 종료 후 교육생 전원 ㈜DS테크노 취업 연계





추진성과

- 교육생(20명) 전원 교육 수료('25.11.27) 후 ㈜DS테크노 채용 예정
- 반도체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채용 비용 절감
- 청년층 지역 정착 및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
- 산·학·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산업인력 양성 모델 구축

다시 태어나는 문막교!

새로운 교량 공법 선정으로 115억 예산 절감하다!
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(문막교) 정비사업

도로관리과

추진배경

- 1963년 준공된 문막교는 하천기본계획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유수소통 장애가 발생하고,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(유실위험) 으로 판정되어 재가설이 시급한 상황
-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, 재가설 사업을 추진
- 교량 재가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교통여건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, 하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설계를 통해 유수소통이 원활한 교량으로 개선

추진성과

-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한 공법을 선정하여 예산 115억 원 절감 효과 달성
- 향후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신속하고 안전한 시공을 통해 교통 안전성 향상에 기여
-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'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'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,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여 예정



예산 0원!

민-관-공 협업으로 이뤄낸 남원주역세권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

남원주역세권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

지역개발과

추진배경

- KTX 원주역 개통 이후 역세권 일대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. 원주시가 주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우미건설, 중봉건설과 **'남원주역세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'**을 체결
- **(LH)** 역세권 내 미활용 토지 7필지를 1년간 무상 제공
- **(우미·중봉건설)** 사회공헌사업으로 임시주차장(골재포설, 주차선 등) 무상 조성
- **(원주시)** 완성된 주차장을 시민과 공동주택 건설근로자에게 '무료'로 개방하고 운영·관리



추진성과

- "임시주차장 조성이 오히려 놀고 있는 토지 가치를 향상시킨다" 는 논리로 LH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상호 인식을 도출함으로써 **'토지 사용료 면제', '원상복구 면제'**라는 창의적 합의를 이끌어냄
- 예산 투입 없이(조성비 0원) 역세권 핵심 부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신속히 확보하여 시민과 건설근로자들의 주차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
- 지자체-공공기관-민간기업 모두가 'Win-Win'하는 성공적인 민·관·공 협업 모델을 구축

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배움에서 진로까지, ‘꿈이룸 확장 프로젝트’

「꿈을 잇다: 영아티스트 지원사업」, 「꿈이룸 나누기」, 「꿈이룸 더하기」

교육청소년과

추진배경

- ‘청소년 꿈이룸 바우처’는 원주시 대표 교육복지정책으로,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예체능 체험을 지원해 현재 참여율 96.8%, 가맹점 790개, 만족도 96.8%, 재이용 의향 99.3% 등 높은 성과를 기록 중
- 단순 지원 중심의 바우처 한계를 보완하고, 초등학생을 넘어 중·고등까지 이어지는 진로 설계와 지역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자 ‘꿈이룸 확장 프로젝트’ 추진
- 장학금을 지원하는 「꿈을 잇다: 영아티스트 지원사업」과 지역 축제와행사 무대에 꿈이룸 학생들을 연결하는 「꿈이룸 나누기」를 연계 추진

추진성과

- **국립공원공단 장학금 지원 협약 체결** (매년 500만 원 후원금 12년간 지원)
- **2025년 「꿈이룸 나누기」 시범 사업에 6개 행사 대상 총 79회 참여**
- 바우처 사업을 초등에서 진학까지 확장하여 장기적 성장 지원 기반 마련
- 공공기관 사회공헌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체계 형성
- 공공기관 후원 및 기존 축제·행사 무대를 활용하는 비예산 사업 설계로 사업 지속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모범적인 공공협력 모델 구축



함께 만드는 따뜻한 변화,
지역이 서로를 돌보다

-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및 겨울철 연탄재 수거 사업
- 취약계층 사망자 라스크 클린업(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이사) 사업
- 원주시 공영장례지원 사업(시민과 함께하는 무연고 사망자 공동추모)

경로복지과

추진배경

▶ 환절기 독거노인 돌봄 공백과 무연고 사망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대됨.

- **독거어르신 안부확인 및 겨울철 연탄재 수거 사업**
  - 읍면동·복지관·봉사단체가 협력하여 독거어르신 7가구를 방문, 건강 점검과 안부 확인 실시
  - 약 1,000장(1.5톤)의 연탄재를 수거하고 주거지 주변 환경을 정비함
- **라스트클린업(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이사) 사업**
  - 무연고 사망자 26명의 주거공간을 정리하고 총 159톤의 유품 및 폐기물을 처리함
  - 봉사단 등 7개 단체와 시민 341명이 예산 없이 26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참여
- **원주시민과 함께하는 공영장례지원 사업**
  - 「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」를 개정하고, 시청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함
  - 2025년 11월말 기준 무연고 사망자 57명 중 44명에게 공영장례를 실시함.



추진성과

▶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, 어려울 때 함께해주는 지역사회의 온기를 전함

▶ 무연고 사망자에게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따뜻한 이별의 온기를 전하며, 공동체의 연대와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였으며, 시민과 종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공동체 장례문화를 확산